

지역간 상생 협력에 관한 인터넷 담론: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윤호영¹, 박한우^{2*}

¹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²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디지털융합비즈니스학 대학원, 동아시아문화학 대학원

A Study of Internet Discussion on Inter-regional co-prosperity : Focusing on Daegu-Gyeongbuk Regions

Ho Young Yoon¹, Han Woo Park^{2*}

¹Division of Communication & Media, Ewha Womans University

²Department of Media & Communication, Yeungnam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지역간 상생 협력과 관련된 인터넷 담론을 살펴보는 연구이다.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상생, 경제, 기업 유치, 문화 관광의 4가지 핵심어 집합을 통해 인터넷 상에 유통되는 담론의 내용을 알아보았다. 또한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댓글 감성 분석을 실시하여 상생 협력과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 인터넷상의 반응이 어떠한지 역시 조사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이 확인되었다. 첫째, 상생과 관련된 인터넷 담론은 단순히 '지원'과 같은 추상적 개념으로부터 구체적인 협력 방안과 정책적 내용으로 진화되어 나갔다. 둘째, 상생을 위한 지역의 실행 방안이 외부 도움이나 지원을 유치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생적인 발전 동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동하여 갔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감성 분석 결과는 지역간 상생 협력 노력이 구체적인 정책 내용으로 연결되면서 홍보될 경우,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으며 긍정적인 정책 추진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 결과는 인터넷 담론 연구가 상생이나 실질적인 지역간 협력 등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방향성을 탐구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담론을 생산하는 이해관계자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시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점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Internet discourse on inter-regional co-prosperity. In particular, the study is interested in the co-prosperity between the Daegu-Gyeongbuk regions. The Internet discourse was searched through a set of four keywords: co-prosperity, economy, business attraction, and cultural tourism. The study also conducted sentiment analysis of YouTube comments to determine how the Internet responds to co-prosperity topics.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ternet discourse related to co-prosperity has evolved from abstract concepts to concrete cooperative measures and policy contents. Second, the discussion of co-prosperity has moved from outside help or support to self-sustaining innate motivation. Finally, YouTube sentiment analysis showed that if co-prosperity efforts between regions are promoted through concrete policy contents, it becomes easier to gain positive responses from citizens and lead a positive policy drive. In this regard, a study on Internet discourse is a useful means to detect citizens' response to inter-regional co-prosperity.

Keywords : Regional Cooperation, Inter-Regional Co-prosperity, Daegu-Gyeongbuk, Sentiment Analysis, Trend Analysis

본 논문의 초기 연구결과는 영남대(Yeungnam Univ) 사이버감성연구소-대구방송(TBC) 데이터 저널리즘 협력하에 뉴스로 제작되었음. 교신저자는 데이터 큐레이션을 도와준 권태성, 송화영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움을 전한다. 2019년.

*Corresponding Author : Han Woo Park(Yeungnam Univ.)

email: hanpark@ynu.ac.kr

Received January 9, 2020

Accepted June 5, 2020

Revised May 13, 2020

Published June 30, 2020

1. 서론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 최근 상생 협력에 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를 살펴보면, 상생이 주로 수도권과 지방의 협력과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의 건설 등 분산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1]. 이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를 둘러싼 지역과 지역간의 상생과 협력에 관한 담론은 상대적으로 부재하여 왔으며,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기업하기 좋은 지방 도시 등에 대한 담론이 지역 발전 담론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지역간 상생에 대한 논의가 부재한 것은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해소가 최우선의 정책 순위를 갖는 가운데, 지역간 협력보다는 지역간 경쟁 및 지역간 이익갈등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이어진 맥락과 관련이 있다[2]. 본래 지역간 분업을 통한 발전, 이익 조정 등의 문제는 사실상 경쟁적 중복을 제거함으로써 상호 의존적인 발전을 통한 경쟁의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지만[3], 분업이전에 지역내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선행적 기제가 더욱 크기 때문에 지역간 상생 및 협력을 통한 발전보다는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지역간 경쟁이 더욱 강조되어 온 이유다.

그러나 지역간 협력을 통한 동반자적인 성장은 지역내 고유한 역량을 개발하여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는 것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광역권 단위의 산업 정책을 통한 경쟁력 향상, 지역간 중복 투자 방지를 통한 효율적인 자원 활용,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정착되는 거버넌스 구조와 협상 경험 등은 정책적 협력을 통한 지역간 상생이 가지는 장점이다[4-5]. 유럽에서도 지역간 협력을 통한 상생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는 정책 실험이 실시된 바 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된 인터리그 III 지역 이니셔티브(INTERREG III Community Initiative)는 유럽 국경을 마주한 지역간 통합을 통한 협력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실시되었다. 보다 구체적인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수단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6-7]. 프로그램의 실시 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성장과 지역 통합을 가져오는 실질적인 협력은 지역간 '탄력성있는 정책(soft policy)'의 적용과 직접적인 '재정 지원'의 두 가지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국내의 경우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발전 방안으로 공동사업 및 자원공유, 생활권 중심 연계, 비즈니스 벨트 협력 등 다양한 방식이 논의된 바 있다[8-11].

그런데, 이러한 협력 관계를 위한 정책과는 별도로 실제 지역간 협력에 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또는 그러한 공감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는 콘텐츠가 인터넷상에 존재하여 유통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선거나 정치적 사안에 관한 인터넷 상의 여론을 살펴보는 연구는 많은 가운데, 지역간 협력에 관한 인터넷 콘텐츠 내용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겨져 있다. 물론, 인터넷 여론이라는 것이 매우 제한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사실이다. 사피로와 박한우[12-13]의 연구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이슈를 다루는 해외 동영상 분석에서 과학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의 댓글이 공론장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과학적 논쟁을 정치 풍자나 오락적으로 반응하면서 주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그 가능성을 부정할 수 있는 증거도 관찰되었다. 박한우[14]는 경북 경주에 발생한 역대 규모의 지진에서 위도와 격려의 핵심 메시지 클러스터 주변에 지역 비하를 언급하는 표현을 추적하여, 인터넷 여론이 공감대와 비공감대가 공존하는 공간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그동안의 연구들은 인터넷 여론이 양날의 검으로써,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점을 밝힌바 있다. 그렇다면, 지역간의 상생에서는 어떠한 것인가?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역 주민들의 긍정적 담론이 많이 유통될수록 협력 관계의 성공이 보장된다[15]. 도시발전과 관련된 이론에 따르면 도시 성장을 위해서는 개방성과 다양성이 중요하데[16-17], 이러한 개방성과 다양성이 가지는 관용의 정도가 높을수록 지역발전에 유리하다는 것이다[18]. 결과적으로 관용의 정도는 지역 사업과 관련된 사안이나 다른 지역과의 협력에 얼마만큼 열려 있는가, 감정적인 호감이 어느 정도인가와 관련되어 지역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간 협력에 관한 인터넷상의 어떤 내용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기로 하였다. 지역간 협력이라는 주제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대구-경북이라는 광역권 생활공간을 정하고,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구-경북 지역간 협력 및 상생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인터넷상의 핵심어들의 내용과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감성 반응은 어떠한가?

둘째, 지역간 협력의 구체적인 하부 주제라 할 수 있는 기업 유치와 문화 관광과 관련된 인터넷상의 핵심어들의 내용과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감성 반응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자료

본 연구에 쓰인 자료는 네이버 자료와 유튜브 자료이다. 자료의 기간 설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16일로 약 2년 9개월의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파이썬 코드를 통해 수집하는 The IMC社의 소프트웨어 텍스트롬(TEXTOM)을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 수는 네이버의 경우, 블로그, 카페, 뉴스를 합쳐서 2017년도 2802건, 2018년도 2892건, 2019년 2870건으로 모두 8564 건이다. 유튜브 자료는 424건의 동영상상에 대한 댓글을 수집한 것이다. 각 동영상을 검색하는 검색어에 따라 댓글의 수가 달라졌는데, 최소 242건의 댓글에서 최대 7877건이었다.

자료 수집에는 [대구, 경북, 상생], [대구, 경북, 경제], [대구, 경북, 기업, 유치], [대구, 경북, 문화, 관광] 등 4가지의 단어 리스트 집합이 활용되었다. 이들 단어 집합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상생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면서 화두를 던진 핵심단어 집합들이다. 즉, 검색어들은 현실 정치 및 정책에 기반을 둔 단어들의 조합으로 이해당사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자료 구성은 검색어 집합을 통해 검색이 되었을 때 이들 단어들과 동시적으로 등장한 빈도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본문에서 제시하는 단어 빈도 결과는 검색어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연관어로서, N-gram의 성격을 가진다.

2.2 분석 방법

분석 방법으로는 빈도 기반 단어 분석을 활용하였다. 빈도기반 단어 분석은 텍스트 분석 과정에서 활용되는 기본적인 기법으로 단어들의 분포가 의미론적(semantic) 함의를 지닌다고 보는 방식이다[19]. 직관적으로 보면, 이는 텍스트에서 단어와 같은 구문 요소를 구분해내어 해당 구문 요소로부터 특정한 의미를 추출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단어들간 연결관계를 분석하여 시각화하거나 잠재된(latent) 토픽을 찾는 방법 등이 그 예이다. 빈도 기반 분석을 위해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식을 차용하였다.

2.2.1 빈도 기반 트렌드 분석

첫 번째 분석 방법은 앞서 제시한 검색어 집합과 가장 연관이 높게 나타나는 단어를 빈도 기반으로 찾는 트렌드

트렌드(trend) 분석이다. 트렌드 분석은 대개 시계열의 데이터가 가지는 시간적인 경향성을 살피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된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강수량의 변화라든가, 수출입 통계 등이 그 예이다[20]. 최근에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과 관련하여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빈도 기반 단어를 추출하고 이를 통해 이슈를 탐지하는 방식으로 트렌드 분석이 확장되고 있다[21]. 본 연구에서는 검색어를 통해 나타나는 글들의 단어 빈도를 통해 이슈의 내용을 알아보는 이슈 탐지의 방법으로 트렌드 분석을 활용하였다. 빈도에는 절대 빈도, 상대빈도, 퍼센트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최대치를 100으로 놓는 표준화된 상대 빈도를 통해 이슈들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2.2.2 감성기반 단어 빈도

감성 분석은 베이지안 분류기(Bayes Classifier)를 활용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기계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감성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자가 일부 데이터를 긍정, 부정, 중립으로 분류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 다음 연구자가 분류한 내용을 입력 데이터로 하여 컴퓨터 분류기가 해당 데이터를 학습한다. 학습한 이후에, 새로운 입력 데이터가 입력되면, 앞서 학습한 내용에 기반하여 해당 데이터를 긍정, 부정, 중립으로 분류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실제 분류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분류기에 투입하게 되면 학습을 기반으로 컴퓨터가 해당 데이터의 내용이 중립인지, 긍정인지, 부정인지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분류기를 활용하여 분류된 감성 반응으로 데이터를 나누고, 해당 감성 내에서 많이 쓰인 단어들을 다시 탐지하여 감성과 연결된 주제 이슈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지역간 상생에 관한 이슈 트렌드

먼저 지역간 상생과 관련된 이슈들의 변화를 네이버 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 이슈들의 변화가 감지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생 협력에 관한 사업의 추진 및 당위성에 관한 이슈로부터 실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슈들이 변화하였다.

지역간 상생과 관련된 인터넷 이슈를 보기 위해 [대구, 경북, 상생]으로 검색한 텍스트들의 상위 10위 단어들을 표시한 Table 1을 보면, 2017년에는 직접적인 검색어가

되는 대구, 경북 등의 지명을 제외하고, ‘개최’, ‘사업’, ‘건설’, ‘추진’ 등의 단어가 가장 높은 상위권의 단어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단어는 ‘상생발전’이나 ‘상생협력’과 같은 단어보다 빈도가 높거나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흐름은 2018년에 강화되었다. Table 1에서, 2018년의 ‘상생발전’ 단어가 가지는 비중이 2017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집행권자인 시장의 이름과 도지사의 이름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2018년에 이들이 이슈화되었다. 그런데, 2019년에는 이러한 준비나 협력적 당위성보다 실제적인 사업으로 이슈가 움직였다. ‘상생협력’이라는 단어가 ‘상생발전’이라는 단어보다 4배가량 상대빈도가 높아지면서, 구체적인 실행의 영역인 ‘관광’이나 실행 방식인 ‘교환근무’ 또는 ‘자매결연’ 등의 단어 비중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Table 1. Frequency of Top 10 Words for [Daegu, Gyeongbuk, Co-prosperity] Keywords Search

Words	Year 2017	Year 2018	Year 2019
Daegu	100	100	94
Gyeongbuk	73	99	100
Host	36	28	-
Business	25	29	-
Construction	24	-	-
Progress	23	31	26
Co-prosperity	23	50	14
Co-prosperity Cooperation	20	-	53
Pohang	16	-	-
Development	15	-	-
Co-prosperity	-	27	-
Kwon Youngjin Mayor	-	23	-
Collaboration	-	22	-
Lee Chulwoo	-	18	-
Sister Relation	-	-	15
Work Exchange	-	-	13
Tourism	-	-	9
MOU	-	-	8
University	-	-	7

Note: Frequency is marked as relative frequency that standardized the maximum value for each year as 100.

연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단어들의 이슈를 정리하여 연결망으로 축소시킨 모습이 Fig. 1이다. 그림을 보면 대구 경북 상생협력이라는 단어를 두고, 크게, ‘사업’, ‘지원’, ‘상생 협력’ 등의 추상적 단어가 많은 빈도로 연결되고, 그 다음으로 ‘일자리’, ‘자매 결연’, ‘교환 근무’ 등의 단어들 이어지면서, 구체성있는 내용들이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에서 보듯 매년 추상적인 개념들의 빈

도가 일정한 비율로 높게 2017년, 2018년 두 해 동안 높게 출현하는 가운데, 구체적 협력 실행 내용과 관련된 이슈들이 2019년에서야 출현한 과정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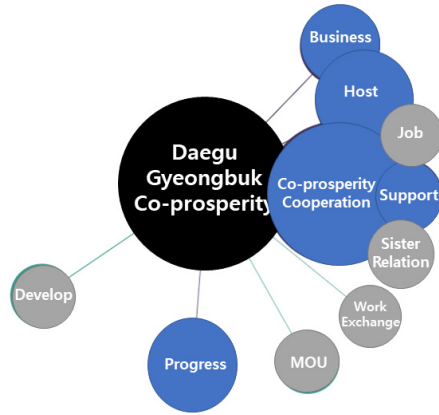


Fig. 1. N-gram for Issues on Co-prosperity

사업추진과 관련된 추상어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 중심이 이동해가는 것은 [대구, 경북, 경제]의 조합으로 검색한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해당 단어 조합으로 검색하여 나타난 상위 10위에 속하는 단어들 중 매해 공통으로 출현한 단어들의 비중을 그린 Fig. 2는 ‘지역경제활성’이라는 단어의 비중이 2017년과 2018년에 높은 상태였다가 2019년에 하락한 것을 보여준다.

또한, 경제 활성화와 관련되어 ‘지원’이라는 단어는 2017년과 2018년에 ‘사업’, ‘기업’ 등의 단어와 비슷한 비중으로 등장하였으나, 2019년에는 해당 단어 대신에, ‘일자리’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 단어가 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래프에서 검색어 내 지명으로 ‘대구’와 ‘경북’을 활용하였는데, 2017년에는 ‘포항’이 그리고 2018년과 2019년에는 ‘울산’이라는 구체적인 지명이 나타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간 협력이 단순히 일대일, 광역 도시 주변 지역에 머물지 않고, 지역내 도시협력 네트워크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것이다.

3.2 상생을 위한 현안 이슈 트렌드

‘일자리’와 관련된 지역 상생의 현안의 돌파구는 ‘기업 유치’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자원 유입과 동시에 ‘관광’과 같은 지역내 산업기반의 활성화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구와 경북 지역명에 [‘기업’, ‘유치’]를 검색어로 조사하였다. Table 2에 따르면, 초기 기업들의 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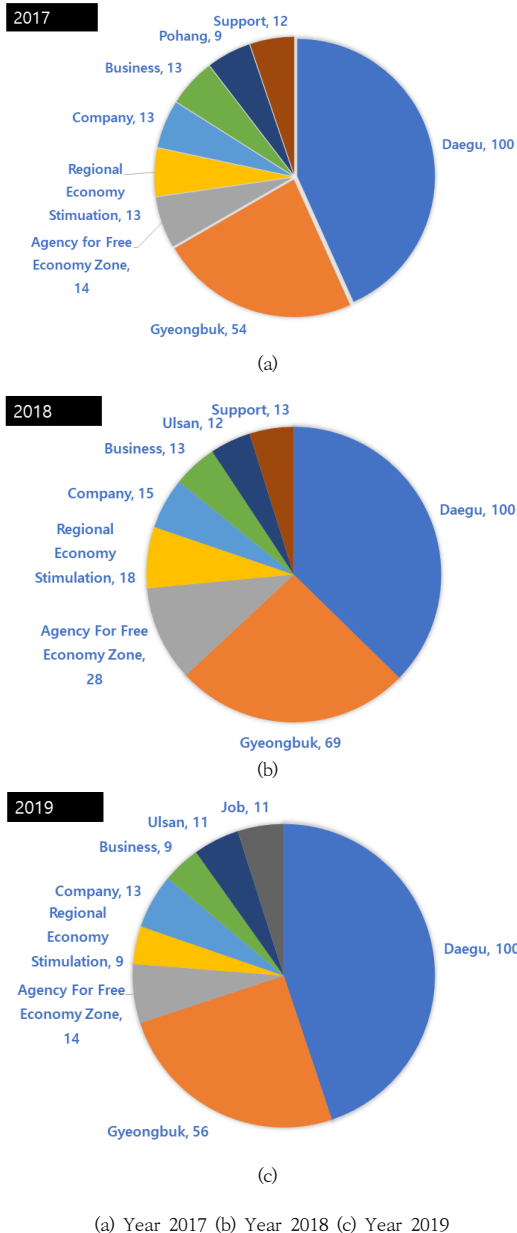


Fig. 2. Selected Top 10 Keywords Frequency for [Daegu, Gyeongbuk, Economy] Keywords Search

리 창출에 관한 ‘지원’에 관한 관심이 직접적인 ‘투자’, ‘혁신도시’와 같은 실질적인 지역 건설에 관한 사항으로 이동하여 간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에 관한 이슈는 상대적으로 약화된 점이 드러난다.

Table 2. Top 10 Words Frequency for Search Keyword “Daegu, Gyeongbuk, Company, Attract”

Words	Year 2017	Year 2018	Year 2019
Daegu	100		
Gyeongbuk	66		
Job	44		
Yeongcheon	41		
Support	38		
Creation	36		
Pohang	36		
Global	33		
Free Economic Zone	31	38	17
Gumi	31	27	23
Host		28	
Ulsan		22	
Attract			31
Investement			20
Innovative City			18

Note: Frequency is marked as relative frequency that standardized the maximum value for each year as 100.

Table 3. Top 10 Words Frequency for Search Keyword “Daegu, Gyeongbuk, Culture, Tourism”

Words	Year 2017	Year 2018	Year 2019
Daegu	100	100	100
Gyeongbuk	78	78	69
Culture	35	30	21
Host	29	-	28
Selection	28	-	-
Promotion	24	-	24
Tourism	23	23	22
Andong	22	25	-
Economy	22	-	-
Committee on Education, Culture, Sport & Tourism	21	-	-
Progress	-	43	-
Gyeongju	-	27	-
Korea Tourism Organization	-	23	-
Lee Chulwoo Governor	-	21	-
Gyeongbuk Tourism Organization	-	20	-
Gyeongbuk Cutlure & Tourism Organization	-	-	34
Gyeongbuk Tour Development	-	-	33
Festival	-	-	18
Festival	-	-	17

Note: Frequency is marked as relative frequency that standardized the maximum value for each year as 100.

['문화', '관광']으로 검색어를 본 결과에서도 홍보나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기관으로부터의 활성화보다는 지역 문화관광공사의 활동이라든가 관광 콘텐츠 개발 등과 같은 내용으로 지역의 적극적 활동으로 관심이 이동해나간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3을 보면, 2017년의

국회 '교육문화체육 관광위원회'나 2018년의 '한국관광공사'와 같은 기관들의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2018년부터 '경북관광공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2019년에는 해당 기관만이 상위 10위권 단어로 나타나는 등 변화가 감지된다.

3.3 유튜브 감성 분석

유튜브에서 [대구, 경북, 상생]과 [대구, 경북, 경제]의 단어 집합으로 검색된 동영상의 댓글을 살펴본 결과, '상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은 반면, '경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상생'과 관련하여서는 2019년의 동영상에만 댓글 반응이 있었는데, 전체의 75.5%가 긍정적인 반응이었으며, 부정적인 반응은 24.1%, 중립적인 반응은 0.4%로 나타났다. 반면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경제'로 검색된 동영상의 댓글에 대한 감성분석 결과, 해당 기간 평균 긍정적인 반응은 11.1%에 불과한 반면, 부정적인 반응은 95%로 나타났으며, 중립적인 반응은 0.7%였다.

'상생'으로 검색된 동영상에 대한 반응에서 긍정적인 반응은 주로 '응원', '감사', '지지', '화이팅' 등의 정책적 지지와 관련된 반응이었으며, '경제'로 검색된 동영상에 대한 반응은 2017년에는 '태양열', 2018년에는 '대기업'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에서 2019년에는 '상생'과 마찬가지로 '응원', '감사', '공감', '동의' 등의 단어가 나타났다. 반면에, 부정적인 감성의 경우 상생과 경제 모두에게서 이념성과 관련된 비난과 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경제와 관련된 부정적인 반응은 '이념'적인 반응으로 요약되었으며, 상생과 관련하여서는 관계자와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상생에 관한 긍정적인 반응은 "상생형 정책 응원합니다"로 나타난다거나 "대구 공항 이전에 노력하시는 ...(중략)..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감사드립니다" 등으로 나타나는 식이다. 반면 부정적인 반응은 "보여주기 식으로 가난한 국민들 피땀아먹는 ... (하략)" 또는 "빨갱이 .. (중략) .. 대구시민 100이면 100은 다 싫어하는데" 등의 공세적인 비판이었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지역간 상생 협력과 관련하여 인터넷상의 관련 핵심어들을 중심으로 연관을 분석을 실시하였고 또한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감성 반응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알아낼 수 있었던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상생과 관련된 내용은 추상적인 협력이나 지원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하여 구체적인 협력 방안과 정책적 내용으로 채워져 나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상생을 수행하고자하는 기관들이 상생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내용이 실제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면서 상생의 방향을 알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상생을 위한 방안의 내용이 전통적인 기업 유치나 경제자유구역에 그치지 않고, 혁신 도시 건설과 같은 담론과 더불어, 내부적인 문화 관광의 개발 등이 일자리 창출과 이어지는 방향으로 조직화되어가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넷 상의 게시판의 내용을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책적 내용이 부각되는데 그 내용이 외부 기관과의 지원이나 협력에 그치지 않고 자생적인 발전의 노력과 연결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유튜브 감성 분석 결과는 지역간 상생협력 노력이 해당 지역내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으며 긍정적인 정책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동시에, 구체적인 정책이 아닌 '경제'라는 추상적 내용으로 연결될 경우, 인터넷상의 부정적인 영향인 대립이 나타나면서 실질 정책의 내용보다는 이념성향에 의해 담론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앞으로 상생이나 실질적인 지역간 협력 등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담론을 생산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서 이는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함의를 담고 있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간 상생을 통한 협력이 지역 이익을 성취하기 위한 무한 대립이 아닌 경쟁적 공존과 협력을 통한 상호 경쟁력 향상 및 공동 이익 추구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역 차원에서의 상호 협력을 통한 구체적인 실행 정책의 추구는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 역시 확인했다 할 것이다.

이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거주 지역의 발전과정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협력과 발전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긍정성이 담론화될 때 상생 협력이 이루어지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측면이 있다. 물론, 본 연구는 시민들의 담론이 시행된 지역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에 공감하는 것이 선행되어 상생 협력이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생 협력안이 상정된 이후 해당 협력안에 대한 대민 홍보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업 추진이 중요한 만큼, 실제 추진이후 긍정적인 반응에 기반하여 더욱 더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는 것 모두 중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 그 자체의 선후 관계와 상관없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일반적인 '경제'와 같은 주제 자체는 지역 역량에 대한 평가나 정책적 차원의 논의보다는 불필요한 이념적 대립 혹은 인터넷상의 갈등 담론만이 남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인터넷의 부작용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간 상생을 위한 이해 당사자들은 이러한 점을 정책 구현과정에서 고려하여 추상적인 정책적 단어나 구호를 밝히기보다는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 그리고 그 정책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수치 제시 등 구체성을 가지고 상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K. R. Ma. "Strategies for Balanced Development in the Age of Decimation of Local Area",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2018 Annual Conference Proceedings,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pp 16-21. 2018.
- [2] K. R. Lee, D. B. Song. "A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the Centralization of Capital Region and the Regional Disparity", *Korean Comparative Government Review*, vol. 15, no. 1, pp 373-390. 2011.
- [3] Y. J. Kang "Factors influencing Successful Cooperation between Regions for Development" *Chungnam Nondan*, vol. 7, pp. 94-113. 2007.
- [4] S. G. Kim. "The Status of Collaboration and Co-prosperity between Regions". *Open Chungnam*, vol. 32, pp 5-19. 2005.
- [5] H. Y. Jung. "Policy Directive for Mutual Development Between Regions". *Regions and Development*, vol. 11, pp. 16-19. 2013.
- [6] European Commission. "INTERREG III-INTERACT", European Commission. 2008. Available from : 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en/atlas/programmes/2000-2006/european/interreg-iii-interact (accessed from Dec. 23. 2019).
- [7] European Commission. "INTERREG III Community Initiative(2000-2006) Ex-Post Evaluation. Executive Summary," *European Commission*. 2010.
- [8] D. S. Lee. "Strategies for Symbiotic Development through Inter-regional Collaboration". *Chungbuk Issue & Trend*, vol. 6, pp. 16-21. 2011.
- [9] M. R. Song, I. H. Kwon. "Policy Tasks for Regional Happiness Zone through the Collaboration between Regions" *KREI Rural Focus*, vol. 94, pp 1-29. 2014.
- [10] E. K. Kim, H. W. Kang. "A Study on Interregional Industrial Linkage and Cooperation" *Policy Research*, vol. 2010-24. 2010.
- [11] Y. M. Seo, M. S. Kang, H. E. Park, D. E. Kwon. "Interregional Cooperation Policy in Japan using 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 *National Territory*, vol. 448, pp 58-69. 2019.
- [12] M. A., Shapiro, H. W. Park. "More than Entertainment: YouTube and Public Responses to the Science of Global Warming and Climate Change". *Social Science Information*, vol. 51, no. 1, pp 115-145. 2015. DOI: <https://doi.org/10.1177/0539018414554730>
- [13] M. A. Sahpiro, H. W. Park. "Climate Change and YouTube: Deliberation Potential in Post-Video Discussion", *Environmental Communication*. vol. 12, no. 1, pp 115-131. 2018. DOI: <https://doi.org/10.1080/17524032.2017.1289108>
- [14] S. J. Park, Y. S., Lim, H. W. Park. "Comparing Twitter and YouTube Networks in Information Diffusion: The Case of 'Occupy Wall Street' Movement.",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vol. 95, pp 208-217. 2015. DOI: <https://doi.org/10.1016/j.techfore.2015.02.003>
- [15] H. W. Park. "YouTubers' networking activities during the 2016 South Korea earthquake.", *Quality & Quantity*, vol. 52, no. 3, pp 1057-1068. 2018.
- [16] D. H. Sa. "The Change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The Korean Regional politics Review*, vol. 14, no. 1, pp 123-144. 2002.
- [17] B. J. Kim. "Elections and Regional Development: To Make the Relationship Functional". *Discourse and Policy in Social Science*, vol. 5, no. 1. pp 1-21. 2012.
- [18] Florida, Richard (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And How It's Transforming Work, Leisure, Community and Everyday Life*. Basic Books. USA. 2002.
- [19] J. D. Hamilton. *Time Series Analysis*. Princeton University Press, USA. 1994.
- [20] P. D. Turney, P. Pantel. "From Frequency to Meaning: Vector space models of semantics". *Journal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vol. 37. pp 141-188. 2010.
- [21] H. Kim, N. Cho, K. Shin. "Text Mining-Based Emerging Trend Analysis for the Aviation Industry." *Journal of Intelligent Information System*, vol. 21, no. 1, pp 65-82. 2015.

윤 호 영(Yoon Ho Young)

[정회원]



- 2005년 8월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사회학석사)
- 2017년 8월 : 미 위스콘신대학교 저널리즘 & 커뮤니케이션 박사(커뮤니케이션학박사)
- 2019년 3월 ~ 2020년 2월 : 서울시립대 융합전공학부 객원교수
- 2020년 3월 ~ 현재 :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미디어 데이터 사이언스, 미디어 생태계

박 한 우(Han Woo Park)

[정회원]



- 1995년 2월 :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정치학사)
- 1997년 2월 : 서울대 언론정보학 (문학석사)
- 2002년 6월 : 뉴욕주립대학교 (버팔로) 정보학/커뮤니케이션학(PhD)
- 2003년 3월 ~ 현재 : 영남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빅데이터, 웹보메트릭스, 블록체인, 네트워크분석, 과학기술 정보학, 소셜미디어, 트리플헬릭스